

# 광주 2년만에 미래 100년 이끌 'AI 중심도시' 되다

###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지난해 착공 순항 기업 94개 유치·핵심인력 1254명 양성 일자리 창출 윤석열 당선인 광주 대표 공약... 사업 가속도 기대감

광주시가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AI 집적단지) 조성 사업 착수 2년 만에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광주 대표 공약으로 '대한민국 AI 대표 도시 조성'을 내놓으면서 차기 정부 국정 과제 반영 시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따르

면 올해로 3년차를 맞은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2019년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선정 이후 순항하고 있다. AI집적단지 조성 1단계 사업(2020-2024)이 착착 진행중이고, 정부는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2025-2029)을 중심으로 광주를 '최첨단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확정했다. 광주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1월

'AI 중심도시 광주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을 출범하고, 광주 인공지능 사업의 핵심인 AI 데이터센터를 지난해 11월 착공했다. 올해 말까지 AI 데이터센터가, 내년에는 AI 집적단지가 완공 예정이다. 광주 주력산업인 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 분야의 AI실증 테스트 환경 구축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한국광기술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광주그린카진흥원 등 3곳에 분야별 실증센터를 구축·운영 중이며, 각 분야에 인공지능 실증장비 63종을 도입했다. 올해도 14종(자동차 11종, 에너지 1종, 헬스케어 2종)을 도입한다. 광주시는 AI집적단지 내에 국내 최대 규모의 'AI형 자율주행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도 구축하고 있다. 시뮬레이터는 승용, 상용, 특수 목적의

3대 이상의 교환형 캐빈을 통해 다양한 차량의 성능 및 안전성 평가·검증을 수행하게 된다. 'AI기업 창업의 요람'인 광주 인공지능 창업캠프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현재 AI 시제품 제작지원, 규제 해소 컨설팅, 투자유치 지원 등 분야에서 292개 기업을 지원하고, 434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 AI기업도 광주로 모여들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년간 AI 기업·기관 145개사와 협약을 맺었고 94개사는 이미 광주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무소 개소를 마쳤다. 신규 일자리도 391개나 창출했다. 광주시와 사업단은 AI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AI 전문인력도 1254명이나 양성했다.

지역 4개 대학에선 AI융합학부 전공 과정 등을 신설했으며, 인공지능사관학교에선 재직자 및 구직자 대상 AI 직무 전환 교육을 비롯한 취업을 앞둔 청년을 대상으로 실무 고급 인재 양성 과정 등을 운영 중이다. 임차식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광주에 등지를 틈 AI 기업들 간의 활발한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광주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AI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도시이자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SRF 가동 안된다" 지역 주민들 시위  
나주 SRF 가동과 관련해 30일 오전 나주 빛기림호수공원 광장에서 지역 주민들이 가동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도, 3조 투입해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 꿈꾼다

### 7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5년간 체류관광 기반 구축

전남도가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 도약과 대한민국 제1체류관광지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3조1784억 원을 투입하는 '7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2022-2031년)과 연계해 추진된다.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남 관광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대 목표 8대 전략 64개 핵심사업을 담았다. 목표별로 '동북아 해양관광중심지 도약'을 위해

남해안 복합관광 거점조성 8개, 체험형 해양·생태 관광 발굴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안전한 체류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10개, 청정 전남 안심관광 이미지 구축 8개 사업을 시행한다. '도민중심 공정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전남형 웰니스관광 활성화 5개, 주민주도형 관광개발계획 실현 5개 사업을 확정했다. '역사문화콘텐츠 활용 체류관광 육성'을 위해 감성만족 복합관광자원 발굴 7개, 남도의 역사가 흐르는 역사문화 관광루트 조성 10개 사업을 마련했다. 특히 주요 관광지 간 연계성을 강화해 전남권을 ▲휴양·웰빙 테마의 북부관광권 ▲섬 관광·해양 생태 테마의 서부관광권 ▲역사·문화 테마의 중남부 관광권 ▲남해안 관광거점·레저 테마의 동부관광

권으로 구분해 총 64개 전략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5조4118억원, 부가가치 유발 2조1282억원, 일자리 창출 7만3435명 등으로, 관광산업 발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남·경남 등 5개 광역·시의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인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도 지난해 기본구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4월부터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광역 대응체제를 주도적으로 운영해 사업 규모 확대 및 도 발굴사업 최대 반영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현황 한눈에

###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홈페이지 개편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진행상황을 시민과 수시로 공유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광주시 홈페이지 접속 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업데이트도 월 단위로 진행되면서 변경된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도시철도 2호선 배너를 배치하고, 배너 클릭시 '오늘의 공사현황'이라는 게시판으로 이통해 현재 공사가 진행되

고 있는 구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설했다. 특히 1단계 공사 구간을 37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각 구간을 클릭하면 해당 구간에서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 공사가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차선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사 구간에 차선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해당 구간 정보를 업데이트해 공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시민과 공유하는 한편 현장사진을 수시로 업데이트해 현장 접근이 어려운 시민에게 공사현황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국 첫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착공

전남도가 30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전국 최초 해양기상 테마의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을 착공, 해양기상과학 선진국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은 광주지방기상청이 국가 직접 시행사업으로 건립한다. 총사업비 342억 원 을 들여 연면적 537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다. 대표 전시물, 상설전시관, 360도 특수영상관,

미래기상체험관, 예보과학교육실, 기획전시실을 갖출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수시와 함께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모든 과정을 살뜰히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후재난 대응 전조기이자 국민의 사랑을 받는 체험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청각·언어 장애인 복지관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광주시는 "청각·언어 장애인 복지관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선작은 "다양한 감각을 깨우고 느끼고 배우는 공간 오감 살롱"을 주제로 무장애 환경, 안전 공간 확보 방안을 디자인에 담았다. 용역사로 선정된 진짜노리 건축사무소(대표 이충미)에는 3억 5700만원 상당 기본·실시 설계권이 주어진다. 광주시는 북구 양산동 옛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부지 8400여㎡에 92억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 복지관을 2024년까지 완공할 예정이

다. 수어 교육실, 직업 재활실 등을 갖추고 다른 유형 장애인,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구축한다. 설계공모 심사위원장을 맡은 경성국립대학교 김근성 교수는 "당선작은 시각적 인지성이 높은 건축물을 계획한 우수한 작품으로, 명쾌한 동선 해석과 다양한 매스로 다양한 공간의 시인성을 높이는 계획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공기산업활성화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의 거점센터

## 중소기업복합지원 광산구 지역경제활력센터

지하 1층: 기계실, 전기실  
지상 1층: 실험실, 로바라운지, 미세먼지 VR 체험실  
지상 2층: 미세먼지 모니터링센터, 운영사무실, 강당  
지상 3층: 입주사무실(5실)  
옥상: 태양광 설비, 쉼터

위치: 광산구 소촌로 85번길 14-9  
문의: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 ☎062-941-9538

하하하 내 삶이 행복한 광산